

2013년 봄 제59권 1호

성서한국

발칸반도에 성경을 보냅니다!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발송유효기간
12.9.1~13.8.31서초우체국
승인 제41180호

받는사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대한성서교회 홍보진흥본부

1 3 7 - 8 6 3

BIBLE A MONTH CLUB

매달 한 권의 성경을...

BIBLE A MONTH CLUB!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는 정치, 종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성서 번역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블 어 먼쓰 클럽(Bible a Month Club)은
매월 정기적으로 성서헌금을 약정하여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문의 사항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2-2103-8833~4 팩스: 02-2103-8894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대한성서교회 홍보진흥본부 / www.bskorea.or.kr



기념일 성경 나눔!

성경 나눔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 세상의 아이들과 나누겠습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이란?

특별하고 소중한 날을 기념하여,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성경을 나누고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은 이런 날 할 수 있어요!

결혼, 결혼기념일, 출산, 돌, 생일, 입학, 졸업, 취업, 승진, 은퇴, 창립기념일, 부활절, 추수 감사절 등 특별한 날에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에 참여하시면...

본인이나 가족, 친지, 동료 등의 기념일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기부해 주세요. 10만원 이상의 후원을 해주시면 사진과 함께 나눔의 글이 담긴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액자에 담아 드립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원하시는 경우 사진과 글을 보내주세요.

★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방법

기념일 성경 나눔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080-374-3061 / 02-2103-8833~4)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 | 이메일 bible1@bskorea.or.kr | 팩스 02-2103-8894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서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

이메일 : _____

후원금액 : _____

후원계좌 : 수협은행 1010-0997-7440 / 신한은행 140-009-909678
국민은행 070-01-0340-570 / 우체국 011916-01-000076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송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 신청 : ☐ 예 ☐ 아니오

(성경 나눔 증서를 신청하신 경우 아래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면, 증서에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나눔 증서에 넣기 원하는 성명 : _____ 기념일 : _____

나눔 증서에 남기고 싶은 말씀 : _____

C O N T E N T S

2 모금소식

발칸반도에 성경을 보냅니다! · 호재민

7 사람과 사람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1천 권의 성경을 기증하며... · 조지운

12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⑤

바울의 선교전력 도시이자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 · 장홍길

16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시는 구두담이 목사님 · 김영식

18 교도소에서 온 편지

동료에게 전한 성경, 다시 한 번 성경을 부탁드립니다!
<관주성경>이 필요합니다!

20 KBS 소식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들의 성경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
아프리카 사무소 출판과 보급 관계자 본 공회 방문
<ESV 한영성경> 출간

22 지구촌 소식

"드디어 나만의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다!

24 세계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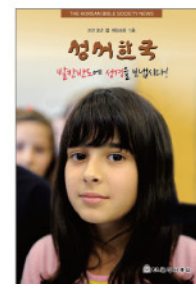
성서한국

2013 · 봄
제59권 1호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팩스 : 2103-8894
- 회원문의 : 2103-8833-4 · 편집문의 : 2103-8811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2103-8791-2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3년 3월 31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디자인하우스 하늘

- <http://www.bskorea.or.kr> / 인터넷으로 성경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찬성회원(후원, 가정, 평생회원) 회비 완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성경을 기증받은
세르비아 소녀



어린이성경을 읽으며 즐거워하는 알바니아 어린이

발칸반도에 성경을 보냅니다!

호재민(홍보진흥본부 본부장)



세계의 화약고,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

발칸반도는 유럽 대륙의 남쪽,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반도이다. 북쪽에는 도나우 강 하류와 사바 강, 동쪽에는 흑해, 남동쪽에는 에게해, 남쪽에는 지중해, 서쪽에는 아드리아해 등이 둘러싸고 있어 자연스럽게 경계가 이루어진다. 발칸이라는 지명은 터키어로 '산맥'을 뜻하는데, 발칸반도는 주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산맥은 루마니아의 카르파티아 산맥, 불가리아의 발칸 산맥과 로도페 산맥, 그리스의 핀두스 산맥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으로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립된 가운데 독특한 민족 전통을 유지해 왔다.

현재의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선교가 시

작되어 기독교가 확장되어 나갔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동·서 로마의 분리로 로마 교회와 정교회의 세력 경계선이 되었다. 14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 지역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나 그 영향권 안에 있던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오스만의 침공으로 일부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었다. 이러한 이슬람의 확장으로 이 지역은 동서양의 문명과 종교 그리고 여러 민족이 뒤섞이게 되어 이질적 요소를 혼재한 모자이크 공화국이 되었다. 발칸반도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세력이 부딪치는 곳으로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다. 20세기에만 발칸 지역에는 5번의 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슬로베니아의 보스니아 난민들 예배
▲세르비아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
▶성경을 기증 받고 기뻐하는 마케도니아 어린이들



발칸반도 지역의 교회들

발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전통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으로는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들의 성경 읽기 습관과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들은 50년간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경험하면서 기독교 영향권으로부터 멀어졌고, 교회들의 복음 전도는 쇠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속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투사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위선자,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발칸 지역 파트너십의 성서 공회들(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은 성경이 제시하는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복음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성

경에 대한 지식과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발칸반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복음 선교 활동을 위해서 신선한 영적 도전과 격려가 필요하다.

발칸반도는 오랜 기독교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복음 선교가 필요한 '선교지' 즉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주의 깊은 계획', '협력' 및 '장기 선교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표현으로 성경적 메시지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보물을 다시 제공하여,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세속에서 구별된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발칸반도 성서공회들의 관심

서부 발칸 지역 파트너십의 성서공회들은 이

러한 노력이 발칸반도의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세속적인 일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다리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지역의 성서공회들은 실제로 이러한 사역을 위해 좋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성서공회들은 서두르지 않고 성서공회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성서공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동안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한 돌봄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양태로 충동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성서공회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지역과 사람들을 향한 "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굳건히 믿고 있다.

특히, 크로아티아의 경우, 전쟁 이후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어, 국내외의 구제기구들이 아동 캠프를 만들어 부모와 집을 잃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크로아티아성서공회 또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기독교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케도니아는 실업률이 높고, 많은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성서공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성경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성서공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마케도니아를 기증 받은 세르비아 어린이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성경을 얻으려고 한다. 성서공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서공회의 무슬림 프로젝트

서부 발칸 지역 파트너십 성서공회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공동 프로젝트로 협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발전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민족적 갈등과 종교적 증오의 특징을 가진 발칸반도 지역에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하길 희망하고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코소보 같은 발칸 지역은 유럽 국가들 중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 외의 발칸 나라들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는 이웃 나라와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무슬림 그룹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슬림의 성장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전과 같은 갈등의 불씨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유럽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의 존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무슬림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발칸 지역 성서공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이웃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성경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서공회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무슬림에 관하여 훈련하게 될 것이고, 무슬림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육용 성경 자료를 번역, 출판하여 지역 교회에 반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하여 발칸 지역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대하여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수천 명의 무슬림들에게 성경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본 공회에서는 발칸반도의 성서공회들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갈등과 종교적 증오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발칸 지역에 성경 보내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원을 헌금하시면 발칸반도에 2권의 성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에게 1천 권의 성경을 전달하며...

— 하나교회 이승재 목사를 만나 —

조지윤(번역실 과장)



가치에서 검열하고 있는 인문군

지난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성서한국》 2012년 겨울, 4-7페이지 참고)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올해 1월 27일 주일, 1천 권의 <개역개정판 관주성경>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교회에 전달하였다.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활짝 웃으며, “전혀 안 추워요!”라고 하며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성경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

나,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관계 기관의 합동 심문을 2~3개월 받은 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머무는 곳이 하나원이다. 보통 하나원에는 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3개월을 머물다가 퇴소한다. 이 하나원에서 가장 활성화된 종교기관이 교회이다.

이곳을 담임 맡고 있는 이승재 목사는 4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목사는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극심한 배고픔과 성적인 학대로 인해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령을 유쾌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몸은 따뜻하지만 마음은 추운 한국 생활

이 목사의 주일 말씀 본문은 시편 109편 5-13절, 다윗의 토설 기도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끔찍한 고통으로 마음에 다툼과 분노, 상처를 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 목사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동안에 겪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놓은 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기도는 북한과 중국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인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는 이들이 보였다. 이들은 또한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심령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원에 입소한 주민들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는데 심각한 영양 부족과 부인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치아가 없어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아 데리고 온 경우들이 있어서 50% 이상의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교회 유치부에서는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파송한 전도사와 자원봉사 교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었다.



하나교회 유치부

이렇게 하나교회에서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나와서는 몸은 따뜻하지만 마음은 추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간 후 각고의 고생 끝에 정착하게 된 한국 땅에서,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더 심한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체제에 익숙했던 이들이,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물질주의에 노출되면서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어렵사리 복음을 접하게 된 이들이 또 다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목사는 멘토링을 통해 한 주에 70~80명을 만나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한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교회를 알선해주세요”라는 웃지 못할 문자를 받기도 하는 이 목사는 중국, 혹은 심지어 제3국에서 직접 도와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지금 북한 성도들은...

이승재 목사는 현재 중국 땅 전역을 헤매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파송한 탈북자 교회 목회자를 만나 성경을 접하게 되는 이들도 있으나, 이단의 전도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전한 한국교회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종교 활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북한에도 아직까지 두 가지 형태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다. 분단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아직도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 있는 그루터기 성도들과 가정교회들이다. 그루터기 성도들은 산골로 숨어들어 그들의 부락을 형성하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하는데, 자녀가 너무 어렸을 때는 이를 숨겼다가,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감출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때에 신앙을 전한다. 가정교회는 소위 지하교회로, 북한의 식량난 이후 중국의 조선족들을 통해 흘러들어간 성경을 접하게 된 이들이 남몰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본 공회가 기증한 성경은...

본 공회가 이번에 하나교회에 기증하는 1천 권의 성경 중 일부는 중국이나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교회 성도들 또한 평생 처음으로 개인 소유의 성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문서를 통해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

문에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하나교회 이승재 목사는 하나교회에 매달 100~150권의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에 기증받은 1천 권의 성경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줄 성경이 있어 너무 기뻐서 잠을 설쳤다는 이 목사는, 하나원에 입소하자마자 개인 성경을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바람을 말한다. 그래서 개인 성경을 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실제로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자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 목사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 1,000만 권의 성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숨어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복음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때 하나교회를 거쳐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민족의 복음화가 되면 대륙 선교의 문이 열려 세계 복음화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 선교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이웃을 돕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공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교회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협력과 기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문의: 02-2103-8820)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북한이탈 여성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통해 듣는 북한 이야기

함경북도 온성에 거주했었다는 지하교회 성도 한 명을 만났다. 이 성도는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온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모두 북한에 두고 와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이 성도는 2000년에 처음으로 탈북을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한 전도사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창세기와 복음서들이 묶여 있는 손바닥만한 수첩 크기의 성경책을 하나 받았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은 옛날이야기 같았다. 더욱이 천국과 지옥, 영원에 대해 전하는 전도사님의 말씀은 전혀 와 닿지 않았다. 날마다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북한에서 살면서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북한을 나온지 1주일만에 성경을 들고 북한으로 도로 들어갔다.

북한에 가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 성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개역개정). 고되고 지친 그의 삶에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었다. 이후 주일마다 혼자 예배를 드렸고, 비록 남편과 딸은 전도하지 못했지만, 이웃사람 3명을 전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 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그리고 십일조를 지키기 위해 장마당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돈을 쥐어 주고 돌아서곤 했다.

현재 북한에는 러시아 영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러시아정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도 후에 십자가 성호를 긋기도 한다. 또 미신이 판을 쳐서 자칭 점쟁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돕는 기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은, 십자가가 있는 집만 찾아가면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성도는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였다. 

바울의 선교전략 도시이자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

장흥길(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 성지에서 고린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
도 없다. 이는 고린도가 바울의 선교전략 도시
였기 때문이다. 그는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면서
주후 50년 이곳에서 로마교회 출신 아굴라와 브
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일 년 반 동안 함께 체류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얼마 후 바울은 세 번
째 선교여행 중 약 3년(52-55년)간 에베소에 머

물려 있을 때 이곳의 교회에 최소한 두 번 편지를
보냈다. 에베소 체류를 끝내고 그는 다시 이곳으
로 와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가, 56년 초 여
기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로마제국의 속주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
자 총독 소재지인 고린도에 바울이 체류했던 연

대는 가이오의 총독 재임 연대와 더불어 바울의
생애 연대기를 복원하는 데 기준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성지 고린도를
살펴보는 것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서남부의 펠로폰네소
스반도 사이를 잇는 약 6km의 지협(地峽)을 끼고
있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다. 이 지협의 북
단에 레케움 항구가 있어 고린도 만(灣)을 통해
이탈리아로 통하는 이오니아해와 연결되었고,
지협 남단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는 바울이 이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머리를 깎고 서
원했던 겐그레아 항구가 있어 사로니코스 만(灣)
을 통해 에게해와 연결되었다. 고린도 지협은 아
테네 등 그리스 본토 도시들과 이탈리아 도시들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엔 지협을
잇는 운하 대신 '디올코스'라 불리는 돌로 포장된

길을 따라 노예를 부려 배와 짐을 다른 편 항구
로 옮겼는데, 이는 육로를 이용할 경우 바닷길의
위험성을 피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
는 뱃길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항
구 사이에 위치해 있던 고대 도시의 유적은 해발
575m의 정상에 위치한 아크로 고린도를 중심으
로 동서로 뻗은 약 4km² 규모의 해안평야에서 발
굴되었다. 현재 고린도의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
이나, 바울 당시에는 5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 이어 로
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 또 인구의
80% 정도는 배를 운반하는 일 등에 부려졌던 노
예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다.

고린도의 역사는 주전 19세기 미케네 시대 에
올리안 족이 대륙에서 이주함으로써 시작되었으
며, 주전 13세기 도리아인이 유입됨으로써 도리
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고린도는 주전 8세기

델피의 가이오 비문



아크로 고린도와 에라스도 비문



고린도의 디올코스





이크로 고린도에서 바라본 고린도



고린도 아고라의 법정

이래로 코르푸와 시칠리아의 수라구사를 식민지로 삼을 정도로 부강하여, 주전 5세기에는 아테나와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 3대 도시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른 후, 아테나와 스파르타에 비해 열세에 놓인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주전 431-404년)과 고린도 전쟁(주전 395-387년)을 치르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주전 338년 마케도나의 필립 2세에 의해 아크로 고린도에 마케도나 수비대가 주둔한 이래, 아들 알렉산더와 후계자의 지배를 받았다. 결국, 주전 146년 로마의 뭉미우스 군대에 점령당함으로써 로마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후, 주전 44년 시저에 의해 안정을 되찾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주전 27년) 도시가 완전히 복구됨으로써 고린도는 로마 원로원이 총독을 파견하는 아가야 주의 수도가 되었다. 주후 15년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가야를 모에시아에 병합되게 함으로써 고린도는 얼마 동안 모에시아 아래 있었으나, 글라우디오 황

제 때 다시 원로원이 관할하는 주의 수도로 복귀하였다. 로마는 고린도에 임기 1년의 총독을 파견하였는데, 바울 방문 당시 아가야의 총독은 51년 6월부터 52년 5월까지 재임한 갈리오였다(행 18:12).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와 관련된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18:1-18, 23-28; 20:1-6)과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 로마서 등이 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 생애 연대기의 재건 시 기준 연대를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바울이 이곳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주후 41-54년 통치)가 즉위 제9년(49년)에 내린 영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나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아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하였는데, 이 전도로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안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51년 6월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인 갈리오에게 바울

의 불법위반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여 바울을 재판정에 서게 하였으나, 총독이 유대인의 불법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 풀려났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소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의 상관치 않았다. 갈리오의 아가야 주 총독 재임 연대는 1905년 델피에서 발견된 '갈리오 비문'에서 밝혀졌는데, 이 비문에 따르면 갈리오의 51년 6월 초부터 52년 5월 말까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지냈다. 글라우디오가 주후 49년에 유대인에게 내린 로마 추방령과 갈리오의 아가야 주 총독 재임 연대를 통해 사도행전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때는 주후 50년이였다. 이는 바울 연대기 복원의 결정적 연대로서 그 이전과 이후 바울 생애의 연대기를 재건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세 번째 선교여행 중 바울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도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어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하였다(행 18:23-28). 현재 신 고린도에 있는 바울기념교회 정면의 벽면에 새겨진 역대 고린도 교회 감독명단에 의하면, 아볼로는 초대 감독 바울에 이어 2대 감독이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서 2년 9개월 동안 머문 뒤, 마케도나와 헬라에 세웠던 교회들을 살펴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 구제를 위한 모금을 위해 이 지역에 3개월간 머물렀다(행 20:1-6). 고린도에 두 번째 체류한 56년 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특히, 고린도서를 보면, 이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

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글로에(1:11)였다. 그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1-4장), 음행(5장)과 제사의식으로 행해진 매음(6장), 혼인(7장), 우상제물(8-10장), 왜곡된 성찬(11장), 은사(12-14장), 몸의 부활 논쟁(15장) 등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다. 이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권면하였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5장과 12장)과 선교 시 받은 고생담(4:8-11; 6:4-10; 11:23-29)을 알리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8-9장)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서바나(스페인)로 가서 전도할 것이며(15:22-29), 그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볼 것인데, 로마로 가기 전에 마케도나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헌금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이다.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서를 전달하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비비를 추천한다(16:1). 그리고 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에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와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의 인사를 함께 전하였다(16:23). 지금도 고린도 성지를 방문하면 볼 수 있는 아크로 고린도, 에라스도 비문이 새겨진 도로, 유대인 회당 주두 장식, 디올코스, 청동거울 등의 고대 고린도 유적은 당시 바울의 선교 모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 ☼

전도하시는 구두담이 목사님

김영식(홍보진흥본부 차장)

한국 선교 초기 때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Bible Christianity)'라고 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Bible-lover) 혹은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Bible-loving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성서한국>에서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샬롬교회 김정하 목사님을 만났다. 김정하 목사님은 언론에 “구두담이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아프리카, 남미의 11명의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배우 차인표는 자신의 “멘토”로 언론에 소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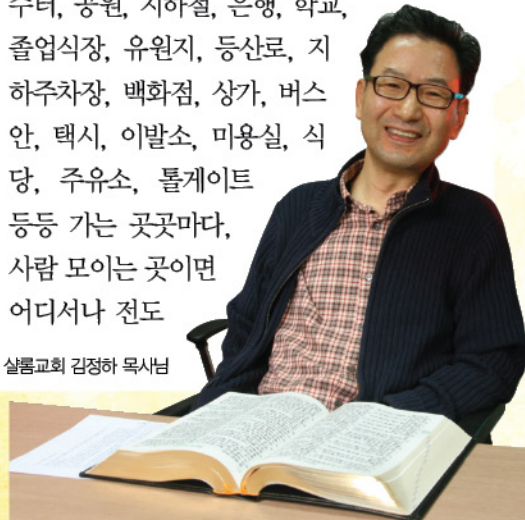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김정하 목사님에 대해 소개를 많이 했고 목사님의 건강 또한 여의치 않아 인터뷰를 꺼려하셨지만 대한성서공회와의 특별한 인연을 생각해서 귀한 시간을 내 주셨다.

2010년부터 시작된 루게릭병으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씀이 어눌하셨지만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계셨다. 목사님 옆에서 간호를 하며, 모든 시중을 드시는 사

모님의 표정 또한 너무나 밝았다.

김정하 목사님은 2008년에 신문기사를 통해 대한성서공회에서 미자립교회에 전도지를 후원해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성서공회를 방문해서 전도지를 수령해 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매일 500명 이상의 영혼들에게 전하셨다고 한다. 목사님께서는 오다가다 한 번 만난 사람은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길에서는 물론, 결혼식장, 장례식장, 병원, 약수터, 공원, 지하철, 은행, 학교, 졸업식장, 유원지, 등산로, 지하철차장, 백화점, 상가, 버스안, 택시, 이발소, 미용실, 식당, 주유소, 톨게이트 등등 가는 곳마다, 사람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전도

샬롬교회 김정하 목사님



지를 전하셨다고 한다.

일이 있어 중국에 가셨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갈 각오로 복음을 전하셨다. 손에는 항상 전도지가 들려 있었고 꿈속에서도 전도하셨다고 한다. 전도하고 있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셨다고 한다. 목사님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다.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너무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며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때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져온 전도지가 모자라 다른 미자립교회에 연락하여 남은 전도지를 구해오기도 하셨다.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열의는 그대로 교인들에게도 전해졌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교인에게 부탁하여 모든 배달 음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넣어 배달하기도 하였다.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자살을 계획하고 산을 오르던 한 사람은 목사님의 전도지를 통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폭력단체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은 목사님의 전도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 전도지를 동생에게 전해 주어 동생의 온 집안을 전도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현재 이 동생 분은 집사님이 되셔서 샬롬교회를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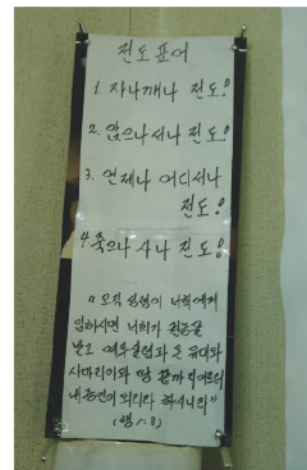
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신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을 가슴에 품고,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셨다. 개척 초기, 가족들이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쌀 한 포를 샀

는데 그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쌀 좀 달라고 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아낌없이 그 쌀 한 포를 다 내어주시며 더 많이 나누어줄 수 있기를 기도드렸다고 한다. 실제로 그 해 샬롬교회는 120포 이상의 쌀을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100배 이상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목사님의 휠체어에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목사님은 루게릭병으로 지금은 혼자서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지만, 이것마저도 감사하며 대한성서공회의 성서사업과 전도지 기증사업이 더욱 부흥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주셨다. ☺



샬롬교회에 걸려 있는 전도 표어



동료에게 전한 성경, 다시 한 번 성경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한 해의 끝자락 12월이 저물어 가버린 지가 벌써 1주일이나 지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감사 찬양할 수 있어 기쁘네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자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편)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찬양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고난도 고통도 몸소 십자가 고통으로 체험하신 주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시공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그늘에 기댄 자에게 구원함을 베푸시는 사랑, 여기에 하나하나 심어놓으신 은혜... 모진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허물투성이...

그래도 모든 허물은 덮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참 진리, 생명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하시고 이렇게 지면이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여쭙게 되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한지, 그 구별된 삶이 윤택하리니 있게 하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죄인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계신 선생님들의 사랑에 말씀으로 답하며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와 함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낌없는 은혜로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저와 함께 교육을 받고 계신 연세 드신 분이, 저보다도 더 눈이 어두운 분이 꼭 큰 글자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께 성경을 드렸는데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글쓰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짧은 글로써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신 말씀, 성경도 감사하는데 옆치없는 행동은 보여서 머리 조아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주시지요. <개역개정판> 성경을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그분께 드리고 나니 제가 큰 글자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꼭 주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온 겨울 유달리 추운 것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새해는 더욱 영육 간 모진 바람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성서공회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려갑니다. 🌐

2013년 1월 8일

못난 죄인 드림

<관주성경>이 필요합니다!

한겨울 추위가 다소 누그러져 모든 생활에 조금의 여유가 있는 듯하나 아직은 한기가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2월 초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힘든어하다가 마음잡고 성경을 읽으려고 대한성서공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의 편지에 대한 답으로 2012년 12월 17일, 성경 1권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답장을 드렸고, 최근 1월 11일, 갑자기 경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움을 주셨으나 이번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기 위해 옆치분구하고 편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으나 신약과 구약의 상호연결 어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은터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관주성경>이라는 것을 소개받고 저의 성경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으니 한 번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QT 묵상과 선교지 성경 등을 읽고 있으나 조금 더 체계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드리는 부탁이니 다시 한 번 도움을 주십시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며, 사장님 가정에도 화평이 넘치시기를 먼발치에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 1월 17일

경주교도소에서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들의 성경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



본 공회의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권익현 사장(오른쪽)

본 공회 권익현 사장은 지난 2월,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서 개최된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들의 성경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적인 관심 및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토고, 베닌과 부르키나파소 성서공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이들 성서공회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들의 성서 반포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본 공회 권익현 사장은 이 회의에 참석한 토고,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과 차드 10개국 성서공회 대표들과 이들 성서공회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참석한 미국, 네덜란드, 브라질과 캐나다 성서공회 대표들과 함께 회의 전 일정을 소화하며, 이 지역 성서공회들이 성서 반포 분야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 듣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 공회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성서공회들과 본 공회의 성장 경험을 나누고,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들의 사역 발전을 위한 본 공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한결같이 본 공회의 성장 경험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의 성경 조판을 지원하고, 독자들의 요구에 맞춘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성서를 제작, 공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본 공회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아프리카 사무소 출판과 보급 관계자 본 공회 방문

지난 2월 18일에 아프리카 나이로비 사무소에서 성서 출판을 맡고 있는 앨리스 루히우(Alice Ruhii)와 성서 공급을 맡고 있는 로스 킬론조(Rose Kilonzo)가 본 공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성서회관과 반포 센터, 성서 제본소인 (주)바이블 코리아를 둘러보고, 본 공회가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의 성서 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며 감사를 표하였다.

20년 넘게 아프리카 성서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들은, 한 품목의 성서가 아프리카 지역의 각국 성서공회들에 무사히 전달되는 동안 보통 50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며 말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1주일에 한 번씩만 이메일을 체크하는 성서공회들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본 공회가 다른 나라 성서공회들과는 달리 우수한 품질의 성서를 1달러 미만으로 제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이 원활하게 성서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본 공회에 제작을 의뢰하면 조판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

《ESV 한영성경》 출간



본 공회는 지난 1월 15일, 500여 년의 영어 성경 전통을 잇는 'ESV 성경'과 한국 교회 예배용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이 대조 편집된 《ESV 한영성경》을 출간하였다. 개역개정판 성경과 ESV 성경은 '원문을 충실하게 옮긴 성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앞부분에는 ESV 영어 서문이 있어 이를 통해 'ESV 성경'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글과 영어 본문 모두에 난외주가 달려 있어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어 본문 중심으로 편집되어(한글:영어=3:7 비율) 영어 예배, 영어 성경 스터디 등 영어 성경의 사용 비중이 높은 모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한영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으로 더 깊은 성경연구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 될 것이다. (구입 문의: 02-2103-8790) 🌐

“드디어 나만의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쿠아 상탈



토고 인구의 25%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다. 이렇게 높은 문맹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특히 종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충분치가 않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토고성서공회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토고성서공회는 오디오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는 방법을 교육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을 받을 수 있다. 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성경책을 얻기 위해 몇 마일을 걸어간 메리 존스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메리 존스를 따라 성경을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아졌지만, 지속적으로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토고성서공회가 성경을 읽

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듣고, 저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고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 개인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아쿠아 상탈이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아피아 쿠마칸은 딸과 함께 성경을 받았다. 아피아는 “저는 학교를 다닐 기회가 없어서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인 세롬이 성경을 읽어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토고성서공회에서 제공해준 성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맹 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저는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읽을 수 있는 저의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다.



수십만 명의 시리아인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의 국경을 넘어 안전을 위해 이웃 국가로 이동하였다. 현재 레바논에는 260,000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 성경과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레바논성서공회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레바논성서공회 총무인 마이크 바수 박사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아 빈손으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레바논성서공회 구호 팀은 최근 베이루트의 가장 열악한 지역을 방문하여서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기간 동안, 200개의 가정에 음식을 포함한 구호품과 함께 아랍어 성경을 전달하였습니다.

구호품을 받은 한 가정은 본인들이 지내고 있는 작은 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시리아의 집이 전쟁 중 폭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호품을 열어본 가정의 어머니는 성경책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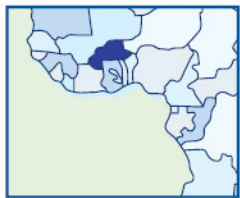
습니다. ‘이전에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어머니의 세 살배기 아들은 성경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성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도움과 희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레바논성서공회는 2,000개의 구호품과 성경을 시리아 난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레바논성서공회는 매일 레바논으로 피난을 오는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들을 돕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도 요청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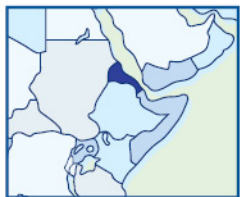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레바논 난민촌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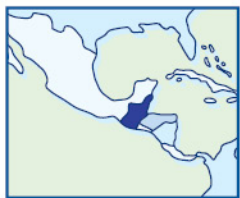
세계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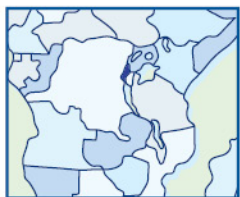
부르키나파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서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맹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맹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속히 읽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서공회의 성경 반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 각 가정 그리고 나아가 부르키나파소 전 지역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성서공회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에리트리아 전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서공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정부의 변화로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은 조직폭력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폭력적인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반포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본인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청소년들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르완다 르완다성서공회는 직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5년간의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으로 직원들과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르완다성서공회는 나라 곳곳에 성경을 반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및 기독교 기관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반포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곳에 붙칠하세요

전국선

◦ Bible a Month Club 회원 신청서 ◦

매달 한 권의 성경을...

성명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집전화		휴대전화	추천인
주소			
이메일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 매월 20,000원(성경 4권) ☐ 매월 10,000원(성경 2권) ☐ 매월 5,000원(성경 1권) ☐ 매월 _____ 원(성경 _____ 권)		
은행명	은행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본인은 약정한 후원금이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의 개인정보를 대한성서공회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반드시 회색영역(3면)에 붙칠하여 반으로 접착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는 곳

◦ Bible a Month Club 주요 프로그램 ◦



북한 동포 성서 프로그램

예배와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 보급의 기회가 열릴 때를 기도하며 100만 명에게 보낼 성경을 준비합니다.



중국 동포 성서 프로그램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중국기독교협회와 협력하여 1987년 세운 중국 남경의 애덕인쇄소에서 한글 성경을 제작하여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보급합니다.



해외 성서 프로그램

가난과 질병, 전쟁과 소외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합니다.



쿠바 성서 지원 프로그램

쿠바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3배가량 성장하여, 현재 쿠바에 약 100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낡고 헤어진 성경이라도 가지고 있는 성도는 25%에 불과합니다. 쿠바성서위원회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쿠바 교회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100만 부의 성경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합니다.